

# ['고난의 역사현장' 일제전적지를 가다](125)

## 등록문화재 국제워크숍

"조사·정비·보존 통해 역사교육의 장으로"

입력 : 2009. 04.23. 00:00:00



▲지난 18일 일제동굴진지 관련 국제워크숍이 한·일 양국 전문가가 참가한 가운데 제주칼호텔에서 열렸다. /사진=이승철기자

### 셋알오름 단일동굴진지로는 제주 최대 세계유산 등록 모색... 日군국주의 고발

태평양전쟁 당시 구축된 일본군 군사시설이 당초 알려진 것보다 대규모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본보 4월 20일자 4면) 이에 따라 등록문화재로 등록된 일제 군사시설의 조사·보존 뿐만 아니라 제주전역에 대한 전수조사와 역사적 의미와 실제 규명 및 역사교육의 장으로 정비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지난 18일 오후 제주칼호텔에서는 '등록문화재 일제 군사시설 조사 보존 활용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일 양국 전문가와 학자 등이 참가한 가운데 2009국제워크숍이 열려 발표와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제주도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제주역사문화진흥원 주관 및 한라일보사가 후원한 이날 국제워크숍에는 일본 류큐대학 이께다 요시후미(池田榮史·고고학) 교수와 츠카사키 마사유키(塚崎昌之) 연구원(오사카경제법과대학아시아연구소), 우에치 카즈야(上地克哉) 연구원(오키나와 하에바르초 교육위원회 매장문화재담당 학예원) 등이 발표자로 참석했다.

또 제주에서는 김동전 제주대 교수(한국사)와 강순원 제주역사문화진흥원 연구원, 이윤형 본보

'고난의 역사현장 일제전적지를 가다' 탐사팀장이 발표에 나섰다.

워크숍은 1부 오키나와 일본군 전적지 현황과 정비·활용사례(사회: 조성윤 제주대 교수), 2부 제주도 일본군 전적지-서귀포시권 등록문화재 중심(사회: 황석규 제주역사문화진흥원 연구원)을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일제 동굴진지 등록문화재 조사현황과 실태'를 주제로 이윤형 팀장이 발표한 조사결과를 보면 송악산 외륜 동굴진지의 경우 출입구 수가 39곳에, 길이가 1433m에 이르는 대형 동굴진지로 밝혀졌다. 현재까지는 출입구 수가 가장 많은 동굴진지일 뿐 아니라 오름 전체를 기준으로 할 경우 가마오름에 이어 두 번째 규모로 파악됐다.

또한 송악산 셋알오름 동굴진지는 외부 기점을 포함할 경우 그 길이가 1334m로 기존에 알려진 1220m를 훨씬 능가한다. 동굴진지 자체 길이만은 995m로, 단일 동굴진지로는 제주도내 최대 규모로 밝혀졌으며, 이곳은 제주도항공기지(알뜨르비행장) 관련 시설을 지하에 은닉하기 위한 용도로 구축된 것으로 보인다는 것. 송악산 해안 동굴진지의 경우는 '제주도항공기지위치도'에 어리고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다, 구조 등으로 볼 때 카이텐(回天)기지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출입구가 39곳에 달하는 송악산 외륜 동굴진지 내부.

김동전 교수는 '등록문화재 동굴진지의 정비·활용방안'을 통해 "제주도에 산재한 일본군 전적지를 우리가 왜 보존해야 하는가 하는 물음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또 문화재청에서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한 유적을 중심으로 정비 보존 및 활용계획 수립과 병행하여, 제주도의 일본군 전쟁유적에 대한 전체적이며 체계적인 조사가 지속적으로 실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역사교육의 현장과 평화학습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는 것.

궁극적으로는 알뜨르비행장 일대 혹은 제주도 전체의 태평양전쟁유적지를 대상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록함으로써 일본의 군국주의적 만행을 세계에 고발하고, 반성을 촉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순원 연구원은 '일제 군사시설의 구축배경과 의미'를 통해 제주도에 대규모 일제 군사시설이 구축되고, 결7호작전의 전략적 위치를 갖게 된 것은 일본은 제주도를 공략당하는 것만으로 전쟁수행이 불가능해질 것으로 판단했고, 미군이 일본토에 상륙하기 전 전진기지로서 항공기지를 만들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또한 제주도에 육상의 진지구축 만이 아니라 해안의 특공기지 구축작업에도 제주도 주민들이 동원됐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이윤형·표성준·이승철기자

### [미니 박스]송약산 외륜은 인간특공용 전진기지

이날 국제워크숍에 참가한 일본 전문가들도 제주도 일제군사시설과 일본토와 비교를 통해 전쟁시설이 갖는 역사적 의미 및 조사·보존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주요발표내용을 간추린다.



▶츠카사키 연구원(일본 본토와 제주도에서의 특공작전의 배경 및 전개양상과 특징)

1945년 제주도에 회천 교룡 해룡 진양이 배치될 예정이었으며, 4종류의 해상특공병기가 전부 배치되기로 된 장소는 10군데 밖에 없다. 이 가운데 7월 말 시점에서 제주도에 배치된 것은 진양 1백척이다. 또한 미군의 일본 본토에 상륙하기 전에 동지나해 주변에 항공기지 건설을 추진할 경우 이를 공격하기 위해 제주도에 특공부대를 제6항공군에서 뽑아 배치할 계획이었다.

오키나와 전 이후에는 비밀 은닉비행장의 설치가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는데, 교래리 비행장도 그 중의 하나다.

송약산 셋알오름의 경우는 사람이 폭약을 끌어안고 전차 밑으로 몸을 날리는 '육박공격'을 위한 전진기지이며, 그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께다 교수(오키나와 일본군 전적지 현황 및 제주도와 비교)

제주도에 있어서 구 일본군 전쟁유적의 분류와 구분방법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제주도에 있어서 구 일본군에 관한 전쟁유적은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가라는 근본적인 이해를 고려한 미래전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전쟁유적은 개별적으로 조사하여 보존하는 것 뿐 만 아니라 복원 정비를 하여 공개함과 동시에 이것을 네트워크화 하여 평화교육의 장소로 적



극 활용하는 방법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쟁유적지를 조사하여 사적으로 지정하고 안내판 설치하는 것만으로는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는 데까지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 만큼 활용을 위해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우에치 연구원(오키나와 육군병원 하에바루초호군 20호의 문화재 지정과 정비 및 공개활용)



현재 일본사회는 전쟁체험 세대가 전체 인구의 20%를 밀돌게 되는 등 전쟁을 모르는 세대와 정치가가 많아지고 있으며, 일본 정치 또한 위험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에바루초호와 같은 전쟁유적을 공개, 오키나와 같은 전쟁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교훈과 평화, 전쟁이란 무엇인가를 전달하려 하고 있다. /이윤형기자

※한라일보([www.hallailbo.co.kr](http://www.hallailb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저작권 문의 특별취재팀 064-750-2231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